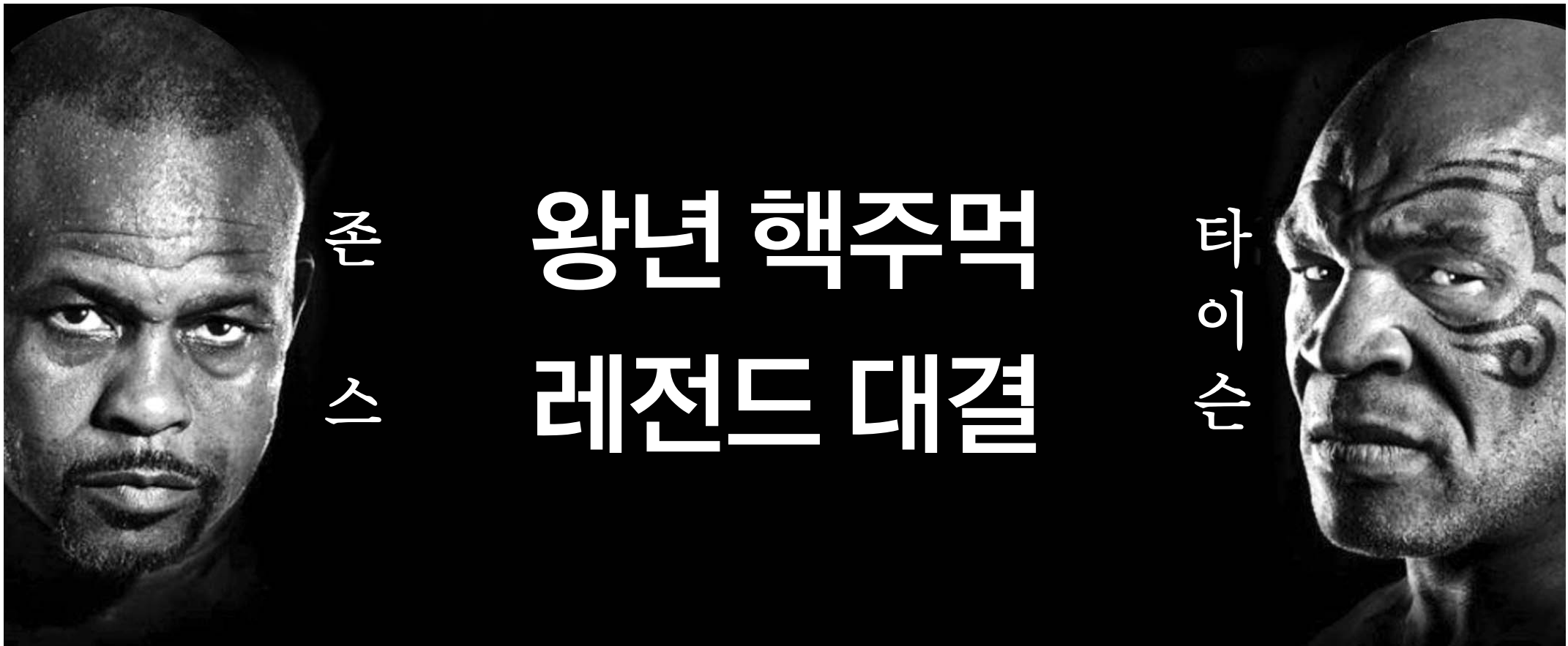




타이슨, 헤비급 전 세계 챔피언 ... 존슨, 미들급·헤비급 등 4체급 석권 이번 주말 LA서 무관중 경기...KT, 올레 TV·Seezn서 영상 무료 제공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4)과 로이 존슨 주니어(51)의 복싱 레전드 매치가 이번 주말 열린다. 나이를 합치면 105세인 둘은 29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티이플스 센터에서 무관중 속에 서로 주먹을 맞댄다.

‘핵주먹’으로 복싱계를 평정한 전 헤비급 세계 챔피언 타이슨은 15년 만에 링에 다시 오른다. 존슨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 미들급, 슈퍼미들급, 라이트헤비급, 헤비급까지 4체급을 석권한 복싱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복싱 역사상 가장 기성친화한 대결로 기록될 둘의 대결은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탓에 무관중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도 대결을 강행한 것은 상당한 수준의 페이퍼뷰(PPV·유료 시청)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에서 둘의 대결을 보려면 49.99달러(약 5만5000원)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KT가 올레 tv와 Seezn(시즌)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두 선수 모두 한동안 현역에서 물러난 상태였기에 전성기 수준의 경기력을 기대해선 안 된다. 게다가 선수 안전을 위한 규정도 엄격하다.

앤디 포스터 캘리포니아주 체육위원회 위원장은 “거친 스파링” 정도의 경기가 될 것이라며 두 선수 모두 KO를 노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포스터 위원장은 만약 대결 도중 어느 선수라도

피부가 찢어지는 커팅부터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이 발생하면 즉각 경기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주심이 이 지침을 충실하게 적용해 KO 문턱에서 경기를 중단시킨다면 맥 빠진 결말이 될 수 있다.

일단 타이슨이나 존슨은 규정은 규정일 뿐 실제 대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면 화끈한 대결을 약속했다.

둘은 모두 헤드기어를 착용하지 않는다. 2분 8라운드 경기로 치러지며 두툼한 12온스 글러브로 대결한다.

두 선수 모두 금지약물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지만 타이슨이 대마초 애연가이자 대마초 농장주인 점을 고려해 금지약물 리스트에서 대마초는 제외했다.

경기는 부심 없이 주심만 있다. 한마디로 승패

를 가리지 않고 두 선수의 복싱 기술만 감상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세계복싱평의회(WBC)는 전직 복서 3명으로 비공식 재점단을 꾸렸고, 승리한 선수에게 명예 벨트를 수여할 예정이다.

강편치로 상대를 줄줄이 눌러 ‘핵주먹’이라고 불렸던 타이슨은 프로복싱 헤비급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발자취를 남겼다.

통산 전적 50승 2무 6패를 기록하면서 44차례나 KO를 뺀 타이슨은 2005년 케빈 맥브라이드에게 6라운드 KO패를 당한 뒤 링을 떠났다. 15년 만에 링에 복귀하는 타이슨은 이번 대결로 1천만달러(약 110억원)를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슨은 수익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피겨 유영 ‘NHK트로피’ 품을까

내일부터 이틀간 日 오사카 ISU 시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 출전

한국 피겨 여자싱글의 간판 유영(16·수리고)이 2020-20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마지막 대회인 ‘NHK트로피’ 우승에 도전한다.

유영은 오는 27~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ISU 시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 NHK트로피에 출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시즌 6차례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가운데 2개 대회(2차·4차)가 취소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유영이 한국 선수로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그랑프리 대회에 도전장을 내민다.

유영은 지난 2월 목동실내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0 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에서 223.23점으로 준우승하며 ‘피겨퀸’ 김연아 이후 11년 만이자 한국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로 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달성했다.

4대륙 대회에 앞서 지난 1월에는 2020년 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트리플 악셀(3회전반)을 필살기로 앞세운 유영은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대회가 갑자기 취소돼 올해 일정도 꼬이기 시작했다.

개인 훈련만 이어가던 힘든 상황에서 유영은 지난달 그랑프리 6차 대회에 특별 초청받아 이번 시즌 첫 국제 대회 출전의 길이 열렸고, 지난달 23일 일찌감치 일본으로 이동해 하마다 마에 코치와 합

계 은반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유영은 NHK 트로피를 통해 두 시즌 연속 그랑프리 시리즈 메달 사냥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 시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낸 유영은 김연아, 임은수(신현고)에 이어 한국 여자 선수로는 세 번째로 시니어 그랑프리 메달리스트가 됐다.

유영은 이번 시즌 새 프로그램도 완성했다. 쇼트프로그램은 퍼커션 리듬이 흥겨운 ‘이스탄불 그루브스’와 영화 ‘아스테릭스:미션 클레오파트라’의 사운드트랙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강렬하고 리드미컬한 연기를 펼치고, 프리스케이팅은 영화 ‘반지의 제왕’ 사운드트랙을 바탕으로 내면의 슬픔과 서정적인 감정을 표현했다.

다만 그동안 연습에 매진했던 쿼드러플 점프(살코·러츠)는 이번 대회에서는 부상 위험 때문에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

유영의 메달 전망은 밝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대회 여자 싱글에는 12명의 참가 선수 가운데 유영이 유일한 외국인 선수다. 나머지 11명은 모두 일본 선수다. 여자싱글 세계랭킹 1위인 기하리 리카가 불참하는 가운데 사카모토 가오리(랭킹 5위·최고점 223.65)와 히구치 와카바(랭킹 18위·최고점 207.46) 등이 유영의 경쟁 상대로 꼽힌다. 개인 최고점 223.23점인 유영의 세계랭킹은 12위다. 유영은 27일 쇼트프로그램을 치르고, 28일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펼친다.

/연합뉴스



유영

신진서, 탕웨이싱 제압

농심배 본선 2차전...내년 2월 3차전

국내 바둑 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농심배에서 위기에서 한국을 구출했다.

신진서는 지난 24일 오후 2시 한국기원 특별대국장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제22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본선 2차전 제9국에서 중국 탕웨이싱 9단과 300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백 4집반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랭킹 1, 2위인 신진서와 박정환 9단이 살아남아 내년 2월 열리는 마지막 3차전에서 우승을 노리게 됐다.

농심배는 한국과 중국, 일본 대표 5명이 출전해 연승전 방식으로 우승국을 정하는 국가대항 단체전이다.

중국은 커제·양딩신 9단이 기다리고 있고 일본도 이아마 유타 9단과 이치리키 료 8단이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홍기표(1승 1패) 9단, 강동윤(1패) 9단, 신민준(1승 1패) 9단이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둬 최강자 신진서가 조기 출국했다.

이번 신진서는 세계대회 3차례 우승 경력이 있는 난적 탕웨이싱을 상대로 초반 실수를 저질러 형세가 불리해졌다. 그러나 신진서는 중반 이후 상대 흑 대마를 끈질기게 공략하며 주도권을 잡아 형세 역전에 성공했다.

탕웨이싱은 십사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국을 이어갔지만, 신진서가 끝까지 대국을 마무리했다.

신진서는 탕웨이싱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3승 2패로 앞섰다.

신진서는 2012년 입단 이후 농심신라면배 국내 선발전에 8번 출전했지만 국가대표로 본선무대에 나선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첫 출전이었던 19회 대회에서는 중국 당이페이 9단에게, 21회 대회에서는 중국 양딩신 9단에게 패해 한 판도 이기지 못했다가 3번째 출전 대회에서 첫승을 신고했다.

이번 대국을 끝으로 2차전을 마친 농심배는 내년 2월 22일 최종 3차전을 시작한다.

3차전 첫 대국인 제10국은 신진서와 일본 랭킹 1위 이아마 유타 9단이 대결한다.

신진서는 2017년 삼성화재배 16강에서 이아마에게 승리한 바 있다.

농심배 우승 상금은 5억원이다.

/연합뉴스

“김연경 악플 안참아”

소속사 라이언엡, 악플러 고소

여자프로배구 ‘최고 스타’ 김연경(흥국생명)의 소속사인 라이언엡이 여러 명의 악플러를 고소했다.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인 라이언엡은 25일 “김연경에 관한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소위 ‘악플러’들을 고소했다”며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연경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 등의 내용을 담은 악성 댓글과 게시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당 기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악플러 중 일정 인원을 무작위로 추출해 1차로 고소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해 해당 자료에서 확인되는 악플러 중 일정 인원을 또다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라이언엡은 “피의자들과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벌금형의 범죄 전력만으로도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의 경우에만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예외적인 합의를 고려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창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이웃사촌
2관	런
3관	도굴
4관	프리키 데스데이
5관	이웃사촌
6관	도굴
9관	이웃사촌
7관 씨네마	내가 죽던 날, 벼든: 세상을 바꾸는 힘 강영 오브 해븐: 디렉터스 프린세스 에미: 마법 책의 비밀
8관 씨네마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로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Relation connection

Na Su Bin

2020. 11. 05 ~ 11. 29

GAC작가공모 전시
Relation connection 나수빈 개인전
2020. 11.5(목) ~ 11.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La Bohème

광주시립오페라단 제6회 정기공연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2020. 11. 30.(월) ~ 12. 1.(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발레단 제127회 정기공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 12. 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